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74호
2023.09.21.(목)

※ 제75호는 한주 휴간 후 10.5(목)에 발간됩니다.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EU·중국】 EU,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 개시에 中 반발

【EU】 공급망 실사법 3자 협상 합의 불발…11월 중 재논의

【미국·한국】 美 상무부 부장관, 9.20일부터 방한…반도체 수출통제 등 공조 논의

주요 산업별 이슈

【자동차】 美 전미자동차노조, GM·포드·스텔란티스 3사 최초 '동시 파업'

【물류】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운송량 줄여…물류 차질 우려

【배터리】 일본, 캐나다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 정책】 美, 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초안 공개

원자재 뉴스 PLUS

【9.2주 원자재 동향】 인도,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공급망 더 알아보기

무역협회,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공급망 소식통

KOTRA, 2023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소부장 참가 기업 모집

무역협회,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무역협회 |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EU·중국 EU,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 개시에 中 반발

- 9.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 정책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반(反)보조금: 상계관세와 비슷한 의미로,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

  - 폰데라이언 위원장은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그 가격은 **중국의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낮게 설정·지속되어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

- EU의 이번 조치는 **中 전기차 업체가 값싼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업계 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국 시장에서조차 경쟁에 뒤쳐질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전망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2년 기준 8%였으나, **'25년에 점유율이 1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中 상무부는 이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라고 반발**하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중국-EU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호를 위해 EU와 대화·협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출처: 블룸버그('23.09.13), 매일경제('23.09.14) 등 KOTRA 종합

EU 공급망 실사법 3자 협상 합의 불발 … 11월 중 재논의

- 9.7일(현지시간) 공급망 실사법 관련 **제 3차 '3자간 협상'**에서 **유럽의회가 채택한 최종 입장이 '22년 말 타협된 이사회 입장보다 엄격**하여 의회 제안(안)을 두고 이사회가 확정하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

- **공급망 범위 설정 및 금융 산업 포함 여부**에 대한 회원국별 의견이 분분해 이사회 차원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 **폴란드·슬로바키아**는 공급망 범위를 전체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아닌 **공급망(supply chain)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체코·리투아니아**는 법적 확실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 정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또한, **프랑스·불가리아**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지침 포함을 반대**하나, **체코**는 기존 이사회 합의안대로 지침 적용 여부는 **회원국 재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향후 공급망 실사법은 **11월 중 개최될 제 4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위는 수주 내에 실사 법안의 보고요건을 완화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으로 관련 동향 주시 필요

출처: Euroactiv('23.09.11)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EU 공급망 실사법 자세히 보기**

미국·한국 美 상무부 부장관, 9.20일부터 방한 … 반도체 수출통제 등 공조 논의

- 9.14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돈 그레이브스 美 상무부 부장관**이 9.20~26일 **15개 美 기업**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
  - 앞서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9.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이 주최한 **한·미 통상협력 포럼**에서 방한 일정을 소개하고 **수출통제와 관련한 韓美 공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을 통해 **반도체 등 신흥 기술 및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수출통제** 등 양국 간 여러 통상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
  -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포럼에서 특파원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중국·러시아 수출통제 방안**과 **韓 기업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1년 유예 연장 여부*** 등 여러 통상 현안을 주제로 논의할 것을 시사

* 美 정부는 '22.10월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中 공장에 한하여 해당 규제를 1년간 유예해준 바 있으나, 1년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韓美 양국 유예 연장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음

출처: KBS('23.09.13), 매일경제('23.09.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자동차 美 전미자동차노조, GM·포드·스텔란티스 3사 최초 '동시 파업'

-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美 전미자동차노조(UAW)는 9.14일(현지시간)부터 **美 3대 차량 제조사(GM·포드·스텔란티스) 공장에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 포드 미시간주 웨인 조립공장, 스텔란티스 오하이오주 털리도 지프차 조립공장, GM 미주리주 웬츠빌 조립공장의 노동자 **약 12,7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조합원 수(15만 명) 대비 미미**하나 주요 외신은 **美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노조는 **▲향후 4년간 임금 30% 이상 인상, ▲주 32시간 근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이 제시한 4년간 17.5~20% 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사측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는 중인 것으로 확인
- 한편, 현지언론에 따르면, 무노조 경영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반사이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업 이후 3사의 인건비 상승 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 제기
  - 더불어, **한국·일본·독일 등 글로벌 완성차 공장**은 해당 노조에 속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진투자증권은 파업 장기화 시 완성차 대비 **부품사의 반사이익 가능성**을 제기
  - 다만, 최근 **현지 인력 채용 확대** 등 요구를 받고 있는 만큼 **'미국 노조 리스크' 지속 관리 필요**

출처: 블룸버그('23.09.15), 월스트리트저널('23.09.15)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물류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운송량 줄여…물류 차질 우려

- 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리까우르떼 바스케즈 파나마운하 청장은 9.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으로 '24년까지 정상적인 운하 운영이 어렵다**고 밝힘
  - 파나마운하청에 따르면, 9.10일 가툰 호수 수위는 79.65피트로, **최근 5개년 9월 평균(85.5피트) 대비 6.8% 낮아져** 파나마운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파나마운하청은 지난 7월부터 **일평균 통행 대수**를 **기존 36대 내외에서 32대로 줄였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선박 흘수***를 **기존 50피트(15.24m)보다 낮은 44피트(13.2m)로 제한**한 바 있음

* 흘수는 선박이 떠 있을 때 선체가 물속에 가라앉는 깊이를 말하며, 배는 화물이 무거울수록 더 깊게 가라앉으므로 흘수 제한 시 선적량을 줄여야 함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의 통행 대수 제한이 계속될 경우 12월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려 글로벌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는 **해운 성수기에 물류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
  - 다만, 일각에서는 **美 경기 둔화로 유통업체들이 재고 줄이기**에 나서 파나마운하 물동량 자체가 줄어 파나마운하의 가뭄 위기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출처: 매일경제('23.09.13), 파이낸셜뉴스('23.09.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배터리 일본, 캐나다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 9.15일(현지시간) 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캐나다**가 **전기자동차(EV) 관련 중요 광물 채굴, 배터리 생산** 등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9.21일(현지시간)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파나소닉 등 일본기업과 동행하여 캐나다를 방문하고, 조너선 윌킨슨 천연자원부 장관 등과 만나 **배터리 공급망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
  - 해당 각서에는 日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등이 **캐나다에서 핵심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日 소재 배터리 기업이 **캐나다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가공**하거나, 그 광물을 원료로 하는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내용 포함

* 美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캐나다 리튬 매장량은 세계 6위로, 4위인 중국의 절반이지만 **기술력·인력 부족으로 생산량은 중국의 약 2%에 불과**함. 일본은 현재 중국, 칠레 등에서 리튬을 수입하고 있음.

- 이번 합의로 일본은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 충족이 용이**해짐에 따라 美 전기자동차(EV) 시장 진출 확대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현재는 **美 IRA의 EV 신차 구입 세액공제 대상에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미포함**되어 있으나, **캐나다에서 핵심광물을 조달·가공할 경우 IRA 요건* 충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차량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고,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에서 제조·조립하는 등의 요건

출처: 연합뉴스('23.09.15), 뉴시스('23.09.15)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 정책 美, 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초안 공개

- 9.8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IPEF 필라2 공급망협정 협정문 초안**을 공개
  - 공급망 협정은 크게 **복원력·안정성 강화**를 위한 **각국의 개별적 노력사항**과 **14개국의 집합적인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공급망위원회·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정 운용을 위한 **협의·발효·가입과 같은 제도 규정도**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8(금)~10.4(수)**까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

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핵심 내용

☞ **공급망협정 협정문 자세히 보기(클릭)**

협정문 개요	• **(목표)** IPEF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협력 증진 및 행동 수행 – IPEF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다변화,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 활동 수행 – 인프라 향상 촉진, 우수 사례 공유, 공동 연구 및 투자 증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 **(발효) 최소 5개 이상** 협상국의 비준서 기탁 후 **30일 이내** 발효
공급망 위원회 (제 6조)	• 각국 협정문 이행 노력 보고서 검토 및 논의 • 핵심분야·주요상품 관련 정책·조치 모범사례 발굴, 공급망 협력 논의 • **최소 3개국 이상이 통보**한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에 대한 **행동계획팀(Action Plan Team)** 설치, 각 행동계획팀이 마련한 행동계획* 검토 * (예) 공급원 다변화, 물류 병목현상 완화, 투자 프로젝트 공동 자금 조달 및 비즈니스 매칭 촉진 등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권고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제 7조)	•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각국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 • 공급망 교란 시 참여국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긴급협력망 역할 담당 •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 추진 • 잠재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과거 경험·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교란에 대비
노동권 자문기구 (제 8조)	• **노동권 증진**을 통해 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복원력 제고 •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우려 파악 및 권고 → **공급망 위원회 보고** • ILO와 협의하여 공급망에서의 노동권에 관한 **분야별 기술보고서 작성**
개별사업장 노사문제 대응 (제 9조)	• 각국은 **개별사업장 노사문제 접수창구 설치** • 접수국은 접수된 주장을 검토하여 **사업장 소재국과 비공개 협의** • 사업장 소재국은 주장 검토 및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화 참여 등 노력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 파악 (제 10조)	• 각국의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파악을 위한 기준(안)*** 제시 * 결핍이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경제적 혼란에 미치는 영향, 단일 지역·국가에 대한 의존도, 잠재적 운송제약 등 지리적 요인, 대체공급자 이용가능성, 국내 생산능력 등 • 역내 협력 대상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선정 → **공급망위원회에 통보(발표 120일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제 12조)	• 공급망 위기 발생국 요청 시 **긴급회의 개최(요청 15일 이내)** • **회의 요청국은 교란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여타국은 공동 대응 지원* 노력 * (예) 유사교란 극복사례 공유, 비즈니스 매칭 지원, 대체 운송경로 발굴, 부족 상품의 생산증대 장려, 과도한 가격 판매 방지 노력 및 사재기 억제

출처: 산업통장자원부 보도자료('23.09.08), KOTRA 워싱턴무역관 U.S Daily Briefing('23.09.08)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간 광물가격 동향('23.09.18) 등

철강 인도,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 9.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中 철강업체들이 철강제품을 덤핑 가격으로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출처: 이데일리(9.12), 아시아경제(9.14)]
  - **中 철강 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내수 경기 위축**으로 철강재 수요가 줄어 **과잉 생산** 상황에 놓이자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8년부터** 중국산 주요 철강재에 대해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9월 2주)

◆ [비철금속] 中 경기지표 개선에 따른 상승세, 니켈은 재고량 증가세로 인한 가격 하락세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	'23.8월	전년비(%)	9.1주	9.2주	전주비(%)
동	8,797	8,628	△1.9%	8,340	8,365	0.3%
니켈	25,605	23,352	△8.8%	20,387	19,914	△2.3%
아연	3,478	2,726	△21.6%	2,436	2,490	2.2%

* 자료원: LME

- **(동)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 개선 및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전기동 가격은 전주대비 0.3% 상승세
  - 다만, 유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미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요 거래소 재고량 증가세**로 **상기 상승압력 부분적으로 상쇄**
- **(니켈)**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심리 확산 및 LME 재고량 증가세**로 하방압력 발생
  - 또한, 인도네시아의 8월 니켈선철(NPI) 생산량이 117천 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하면서 하방요인으로 작용

◆ [철강] 中 경기지표 개선 및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세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	'23.8월	전년비(%)	9.1주	9.2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89.19	△45.7%	161.80	164.32	1.6%
원료탄	364.99	281.12	△23.0%	271.30	299.95	10.6%
철광석	120.26	116.19	△3.4%	118.44	122.07	3.1%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中 산업생산 경기지표 개선 및 주요항구의 철광석 재고량 감소**로 가격상승 압력이 발생했으며,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재고비축 수요 확대**로 상승압력 심화
- **(유연탄)** 9.2주차 국제유가(WTI)는 배럴당 90.77달러로 전주대비 3.7% 상승하는 등 **3주 연속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탄 등 에너지원 가격상승세 견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9월 2주)

◆ [희소금속] 주요 희소금속은 수요 부진 속 가격 하락,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가격 상승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	'23.8월	전년비(%)	9.1주	9.2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314	△15.3	1,175	1,175	-
탄산리튬	72,290	43,426	△39.9	27,543	25,666	△6.8
수산화리튬	67,180	44,790	△33.3	24,116	22,357	△7.3
코발트	31.20	18.07	△42.1	17.58	16.87	△4.0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12,623	△17.8	354,300	358,300	1.1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82,269	△38.4	72,700	74,000	1.8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다수 공급업체들은 현재의 제한된 판매 마진과 中 제강사의 입찰가 상승을 예상하며 오퍼가 유지, 수출가도 변동 없는 내수가와 해외 수요 약세로 유지
- **(탄산리튬) 공급 잉여** 시장상황이 지속되며 **가격 하락 지속**, 中 장시성·쓰촨성 생산업체들이 9월 중 정비보수를 위해 생산을 중단했으나 가격에는 영향 없음
  -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수산화리튬 가격**은 **삼원계 양극재 배터리 수요 저조로 내수·수출가 모두 하락**했으며, **유럽의 中 전기차 보조금 조사 발표**로 향후 中 전기차 산업 및 광물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
- **(코발트)** 유럽 코발트 금속가는 실수요가 적은 상황이나, 공급업체는 현재 낮은 가격 수준에서 하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희토류)** 영구자석 관련 **희토류의 수요는 제한적**이나, **타이트한 공급시장**으로 가격 상승
  - 말레이시아 정부가 **희토류 원광 수출금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글로벌 시장 내 적은 생산량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사우디·러시아 원유 공급 감축 정책 연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지속

〈국제 유가 동향〉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	'23.8월	등락폭	9.1주	9.2주	등락폭
두바이유	96.41	80.19	-16.22	90.36	93.44	3.08
브랜트유	99.04	80.73	-18.31	90.04	92.44	2.40
WTI	94.33	75.88	-18.45	87.15	89.12	1.97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주요 원유 수입국의 석유 공급 부족 우려, EU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中 경기부양책 발표, 美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 발표 및 이란 자금 송금 절차 개시**에 따른 유가 상승
  - 사우디·러시아의 공급 감축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주요 원유 수입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OPEC 산유국인 리비아의 대홍수 발생**으로 동부 지역 원유 수출항 4곳이 폐쇄되면서 유가 상승에 일조

공급망 더 알아보기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김경훈 연구위원
[원문] 김경훈,고성은(2023.9),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KITA 통상리포트 VOL.9)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을 담고 있는 IRA가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IRA가 시행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배터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내용

▶ 친환경차 세액공제(Clean Vehicle Credit)는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

① 북미(North America)에서 최종 조립
②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2023년 기준, 매년 10%p 증가하여 2027년 80% 도달)
③ (배터리 부품 요건)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2023년 기준, 매년 10%p 증가하여 2029년 100% 도달)
④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을 출처로 하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사용 금지

▶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제공

부품명		2023~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배터리	배터리셀($/kWh)	35.00	26.25	17.50	8.75	0
	배터리 모듈($/kWh)	10.0(45.0)*	7.5(33.75)	5.0(22.5)	2.5(11.25)	0(0)
	전극 활물질	비용의 10%	비용의 7.5%	비용의 5.0%	비용의 2.5%	0%
주요 광물	핵심광물	생산비용의 10% (phase-out 미적용)				

* 셀 불포함시 $45/kWh, 셀 포함시 $10/kWh

▶ 지난 3월 31일 발표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양극재를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인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로 분류하여 양극재 생산을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

- 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핵심 광물 비중 계산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미국 정부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 가능지역을 FTA와 핵심광물협정 체결국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입장을 반영

- 일본이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체결하여 IRA 시행지침 상 FTA 체결국 지위를 인정받자 EU,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미국 주도 배터리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국가들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려 시도 중임

▶ IRA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은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아 최근 증가 추세인 한·중 합작기업의 활동에 불확실성 존재

- 해외우려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3국에 진출한 중국기업, 제3국 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작회사(Joint Venture) 등 중국 관련 기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한·중 기업 간 양극재 및 전구체 분야에서 합작 투자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발표될 FEOC 세부지침에 따라 한·중 합작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 배터리 원료광물의 주된 수요처인 양극재는 리튬 이온의 공급원이 되는 리튬 화합물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전구체를 혼합해 소성하여 제조되며, 이들 금속원소의 조성 및 비율에 따라 배터리의 용도와 성능이 좌우

-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원광은 매장량 및 생산량이 특정 국가 및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배터리 원료광물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광을 수입해 원료 화합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우리나라의 양극재 수출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77.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IRA 시행 이후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면서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美 양극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4% 증가한 12.4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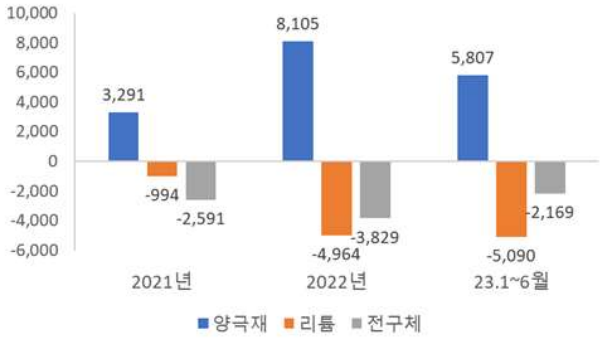
- '22년 對美 양극재 수출은 전년 대비 7.7배 증가(1.7→13.1억 달러)했으며, 전체 양극재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4.0%에서 '22년 11.7%, '23.1~6월에는 16.6%로 증가

▶ 양극재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료가 되는 전구체와 리튬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구체와 리튬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음

- 2023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양극재의 對세계 수출액은 74.9억 달러, 무역수지는 5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리튬과 전구체에서 각각 50.9억 달러, 21.7억 달러의 무역적자 발생

〈 양극재, 리튬, 전구체의 대세계 무역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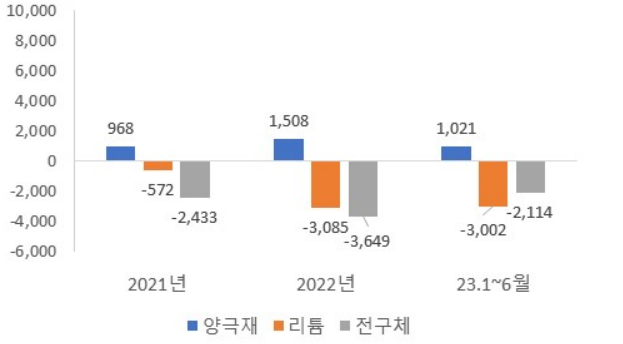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양극재, 리튬, 전구체의 대중국 무역수지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 원자재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리튬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리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

-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원계 양극재에는 수산화리튬이 사용되는데, 리튬 가격의 급등과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22년 수산화리튬의 對중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9.4% 증가하여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에 일조

  * 대중국 수산화리튬 수입액 증가율(%) : ('19) 95.9 → ('20) 25.8 → ('21) 56.4 → ('22)479.4 → ('23.1~6)161.6
  * 대중국 수산화리튬 무역수지(억 달러) : ('19)-2.8 → ('20)-3.6 → ('21)-5.5 → ('22)-32.1 → ('23.1~6)-30.2

- 이에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 염호의 광업권을 확보하고 현지에 탄산리튬 공장을 착공했으며, 호주산 경암형 리튬(스포듀민)을 수입해 수산화리튬으로 정제하는 설비를 국내에 건설하는 등 리튬 가공 과정에서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국내 배터리 업계는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에 대응하고 IRA 상의 핵심광물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구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구체 공정의 내재화를 추진

- 전구체 내재화 진행에 따라 '23.1~6월 중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0.2%, 55.4% 증가했으며, 이들의 원료가 되는 니켈 브리켓과 코발트 중간 제품의 수입량도 각각 38.8%, 98.6% 증가
- 양극재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회수기술 확보 및 배터리 소재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전구체 및 원료 화합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양극재 원료 화합물의 수입(2023.1~6월) 〉

(백만 달러, 톤, %)

광물명	화합물	HS코드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수입 1위국	비중(금액)
리튬	수산화리튬	2825202000	3,698	164.2	55,960	70.5	중국	82.3
	탄산리튬	2836910000	1,613	144.3	28,687	13.9	칠레	84.8
	합계		5,311	157.9	84,647	45.9	중국	60.4
니켈	니켈 파우더	7504001000	199	-18.3	5,529	-17.1	호주	44.1
	니켈 브리켓	7502109000	490	41.0	18,852	38.8	호주	44.0
	황산니켈	2833240000	67	166.0	12,750	190.2	핀란드	72.1
	니켈 중간제품	7501209090	72	-34.4	13,682	-31.0	뉴칼레도니아	73.6
코발트	황산코발트	2833292010	7	-36.8	1,027	55.4	중국	100.0
	산화코발트	2822001091	34	-66.9	1,179	-36.4	중국	69.4
	코발트 중간제품	8105202000	33	-42.7	4,783	98.6	콩고	83.4
망간	황산망간	2833293010	0.3	-44.6	272	-21.3	벨기에	75.0
전구체	금속 수산화물	2825902090	72	-86.8	4,392	-84.3	중국	99.1
	기타 금속산화물	2825901090	450	31.8	22,236	65.9	중국	99.9
	NCA 산화물	2825901040	26	85.0	1,244	129.4	중국	100.0
	NCM 수산화물	2825902050	1,629	51.7	98,277	100.5	중국	96.6
	합계		2,177	10.2	126,149	38.8	중국	97.4
기타		3824999090	638	-6.6	181,567	-4.9	중국	32.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 : 기타(HS 3824909090) 코드에는 양극활물질제조용 원료뿐만 아니라, LFP혼합물, 음극재혼합물, 전극제조용 슬러리 등 성격이 다른 배터리 원료 및 기타 용도가 다른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됨.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 핵심광물이 아닌 부품으로 분류된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등은 북미에서 생산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들 품목의 미국 내 설비투자가 확대될 전망

- 미국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23년 상반기 리튬이온배터리의 對美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했으나, IRA 상의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 조건은 '북미 지역 내 조립 또는 제조' 비중을 2029년까지 100%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의 對美 직접 수출은 둔화가 불가피

▶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해외우려기관(FEOC) 제외 조건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제한되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IRA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한·중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 내수가 빈약한 한국이 자국 시장을 열지 않는 중국과 경쟁하려면 미국의 시장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배터리 원료·소재·부품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할 것임

공급망 소식통

2023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소부장 참가 기업 모집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9월 26일(화)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업환경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입찰, 공공조달법 체계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의 많은 신청 및 참여 바랍니다.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 개요

- 일자 : '23.9.26(화) 15:00~17:00
- 장소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모집 마감 : ~9/22(금)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30-15:00	('30)	등록
15:00-15:05	('05)	인사 말씀
15:05-15:55	('30)	**발표 1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입찰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와 유럽연합(EU) 참여방법** 김만기 교수 (KAIST 공공조달관리과정)
	('20)	**발표 2 우크라이나 사업환경과 재건사업** Volodymyr Matiushko (EU 디지털 경제 특사)
15:55-16:10 ('15) 휴식		
16:10-16:40	('15)	**발표 3 우크라이나 공공조달법 체계** 정규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5)	**발표 4 우크라이나 조달 뉴스레터 활용 및 지원** 정은진 실장 (글로벌조달개발원)
16:40-17:00	('2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세미나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23.9.22(금) 오후 15시까지
  - 선착순 100명으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 02-6000-5082, 5488)

글로벌 경제지표 (23.09.19.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8말	9/15	9/18	9/19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321.80	1,325.90	1,324.40	1,328.50	0.31%	5.06%
선물환(NDF,1월물)	1,190.00	1,265.30	1,320.80	1,324.00	1,322.20	1,326.20	0.30%	4.81%
₩/CNY	186.51	181.44	181.46	182.26	181.62	182.06	0.24%	0.34%
₩/Y100	1,032.48	945.56	905.53	898.92	897.35	898.73	0.15%	△4.95%
Y/U$	115.14	133.73	145.97	147.50	147.59	147.82	0.16%	10.54%
U$/EUR	1.1318	1.0617	1.0911	1.0661	1.0667	1.0677	0.09%	0.57%
CNY/U$	6.3681	6.9630	7.2891	7.2671	7.2859	7.2972	0.16%	4.80%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99.8 (₩/￥100) 945.5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9.18(전일)	'23.9.19	전일比	'22년최저比	'22년말比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95.20	95.19	0.0	23.4	16.4
						0.0%	32.5%	20.8%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4.45	122.75	△1.7	43.3	5.4
						△1.4%	54.4%	4.6%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320.00	8,233.50	△86.5	1233.5	△153.5
						△1.0%	17.6%	△1.8%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65.00	2,174.50	9.5	94.5	△186.0
						0.4%	4.5%	△7.9%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9,745.00	19,360.00	△385.0	260.0	△11065.0
						△1.9%	1.4%	△36.4%

반도체

	'21	'22	'23.6월	'23.7월	'23.8월	9/14	9/15	9/18	9월(~1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51	1.49	1.46	1.48	1.49	1.50	1.46
(%, YoY)	29.9%	△23.0%	△55.2%	△52.1%	△47.2%	△40.6%	△40.1%	△39.6%	△41.9%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3	6.31	6.32	6.31	6.31	6.32	6.31
(%, YoY)	14.7%	10.7%	△20.9%	△7.7%	△3.8%	△4.1%	△4.0%	△3.8%	△4.1%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8.25	9.1	9.8	9.15	전주比(9.8)	'22년말比
SCFI	5046.66	1107.55	1013.78	1033.67	999.25	948.68	△5.1%	△14.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9.13	9.14	9.15	9.18	9.19	전일比(9.18)	'22년말比
BDI	2217	1515	1290	1340	1381	1439	1526	6.0%	0.7%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 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IGnB

피드백하러 가기

https://moaform.com/q/MvDmch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KO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KAR 한국로봇산업협회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KONMA 한국비철금속협회

KPIA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KOIMA 한국수입협회

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EA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BIA 한국전지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KAIA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Kosti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KNOC 한국석유공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